

제20차 일자리위원회
안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

2021. 6. 1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및 실물지원 현황 ...	2
1. 금융권 일자리 현황	2
2.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	5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향	7
1.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8
가. 금융산업 성장동력 확충	8
나. 금융 전문인력 공급	10
2.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12
가. 新성장·혁신 분야 모험자본 공급	12
나. 창업·벤처 분야 지원	13
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15
3. 지역금융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6
가. 지역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강화	16
나. 非수도권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18
IV. 향후 추진계획	20

I.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개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축 등으로 일자리의 중요성 재조명 → 금융분야 전반의 대응방향 점검 필요

□ (금융권 일자리) 기술발전 가속화, 이중산업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이 금융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 존재

○ 일각에서는 자동화,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인력 등 기존 금융권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씨티그룹의 은행의 인력·채널 변화 관련 전망("Bank of the future", '18.3월)
 ▶ 2025년, 은행 지점수는 '14년 대비 30~50% 감소 전망
 ▶ 2025년, 은행 전업인력은 금융위기 이전 대비 40~50% 감소 전망

○ 반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의 등장, 他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외연 확장 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도 공존

※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의 미래」 보고서("The Future of Jobs Report", '20.9월)
 ▶ 향후 5년간 쏠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8,500만개)보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9,700만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신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유망신기술 : 암호화,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휴머노이드, 자동화, 인공지능 등

□ (실물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기업의 실적부진, 고용감소에 대응하여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finance)의 역할 부각



II.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및 실물지원 현황

1. 금융권 일자리 현황

□ (금융권 일자리 현황) '20년말 기준 금융권 취업자 수는 77.8만명 (통계청)으로, 비대면거래 증가 등으로 '13년 이후 감소 추세*

* 금융·보험업 취업자수 (만명) :

	'13	'15	'17	'19	'20
	87.8	79.9	79.4	80.0	77.8
(전체 취업자 중 비중)	(3.5%)	(3.1%)	(3.0%)	(2.9%)	(2.9%)

○ (업권별) '20년말 기준 금융권 종사자는 86.0만명*(금감원·협회)으로, ①금융회사 임직원 38.8만명 + ②설계사·모집인 47.2만명으로 구성

* 조사방식, 금융업 범위 차이 등으로 통계청 통계(77.8만명)와 차이

- 은행·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탈사)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사 등)·상호금융은 증가 추세

※ (참고) 금융권 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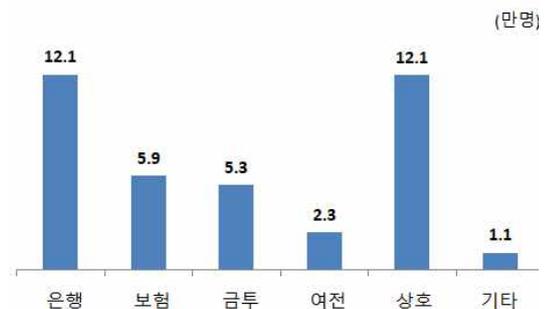
(만명, 연도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융회사 임직원	39.0	39.0	38.4	38.9	38.8
은행	13.4	13.2	12.3	12.3	12.1
보험	5.8	5.7	5.9	6.0	5.9
금융투자	4.5	4.7	4.9	5.1	5.3
여신전문	2.5	2.5	2.3	2.4	2.3
상호금융	11.8	11.9	12.0	12.2	12.1
기타	1.0	1.0	1.0	1.0	1.1
보험설계사	42.8	42.8	42.3	43.8	45.0
카드·대출모집인	3.6	2.9	2.5	2.4	2.2
합계	85.4	84.7	83.2	85.1	86.0

금융·보험업 취업자수 및 비중 추이 (만명, %)



* 자료 : 통계청

업권별 금융회사 임직원 수 ('20년말,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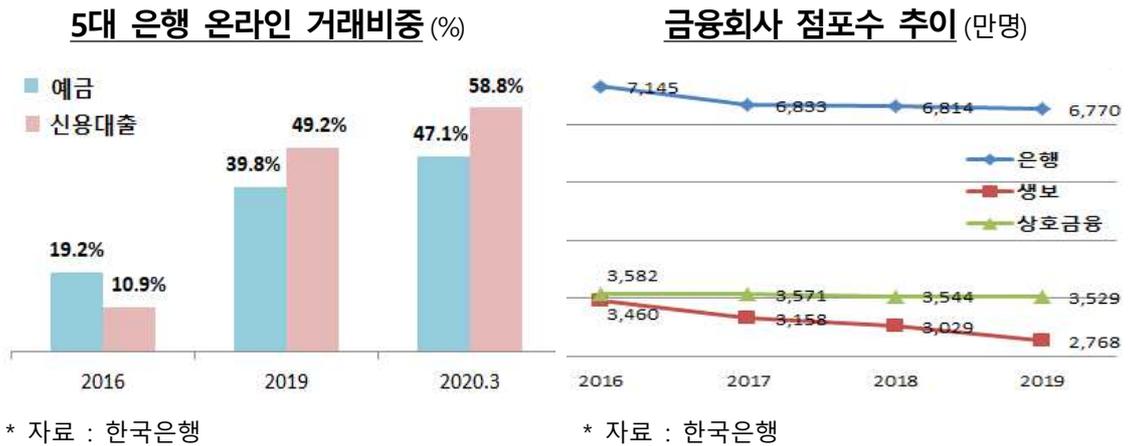


* 자료 : 금감원, 금융협회

□ (여건변화 및 전망) 전통적인 판매채널 인력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특정분야 신규인력 수요는 증가 예상

○ (비대면 거래 증가) 금융회사의 영업점포 축소*로 인해 전통적 판매채널 인력에 대한 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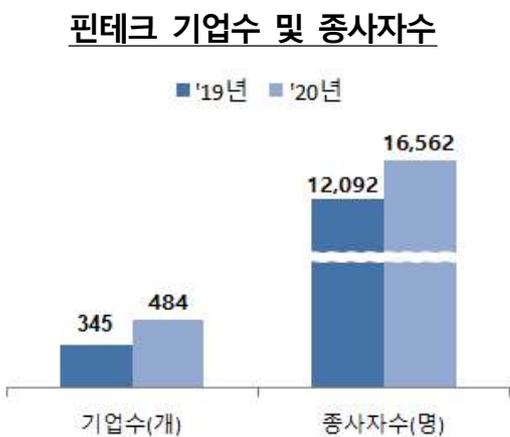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 변동('12년→'19년, World Bank) : (OECD 평균) 24.3→19.6개 (△19.4%) / (한국) 18.3→15.1개 (△17.5%)



○ (금융-IT 융합화)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따라 IT·핀테크 전문인력 수요 증가

주요 사례 : 금융회사의 인력 재교육 (○○은행)

- ▶ (개요) ○○은행은 ⅰ)IT·디지털 인력 확대, ⅱ)창구 등 대면채널 인력 재배치를 위한 기존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
- ▶ (주요 내용) 최근 3년간 ⅰ)디지털 금융·데이터 분석 분야는 818명, ⅱ)고객 자산관리·기업 재무진단 분야는 4,119명이 교육 이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19.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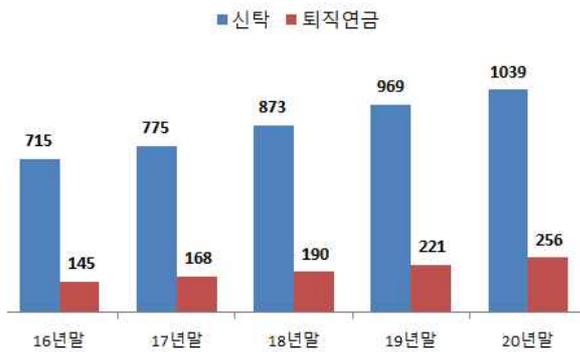
- 과제승인: 145건
- 투자유치: 5,857억원
- 일자리 신규창출: 562명

- (고령화) 노후 대비 자산축적, 고령층 자산관리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따라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예) 고령층 특화 신탁상품 활성화 → 일대일 자문·상담인력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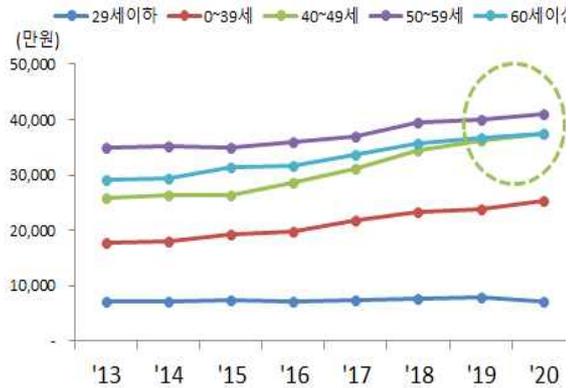
- (저금리) 저금리·저성장 기조 하에서 새로운 시장 및 수익 창출원 발굴 등에 따른 신규 인력수요 증가 예상

연도별 신탁시장 및 퇴직연금 규모 (조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고용노동부

가구주 연령별 가구순자산 추이



* 자료 : 통계청

※ (참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주요내용 (21.1월, 금융연구원)

▶ 금융인력 수요 전망

① (설문조사) 464개 금융회사들(7개 업권*)의 향후 1년 이내('20.9월 기준) **신규 채용** 예상규모는 **4,545명**

* 은행, 보험, 금투, 저축은행, 여신전문, 신탁 (설계사, 모집인 제외)

② (거시경제 모델)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는 매년 191명~1,177명씩 증가***

* 해당 연도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가

※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보다 ①빠르게 성장시 1,177명, ②동일한 속도로 성장시 698명, ③더 느리게 성장시 191명씩 증가

▶ 4차 산업혁명이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 (금융인력 수요 전망) **감소 : 77.9% / 증가* : 22.1%**

* 인력수요 증가로 응답한 비중이 높은 업권 : 신기술(61.1%), 신용카드(60.0%), 신탁(57.1%)

- (감소전망 사유) 판매채널 비대면화(50%), 업무 AI(인공지능) 활용증가(36%) 등

- (증가전망 사유) ICT 관련 수요(49%), 디지털관련 운영·관리 인력수요 증가(24%) 등

2.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

□ 금융권은 고용우수기업, 혁신기업, 지역·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용우수기업)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 여신한도, 금리, 보증료율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산은기은수는 : 고용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20년중 6.6조원의 자금 공급

※ (참고) 주요 금융지원 상품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금리 우대 (산은)	√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 등 √ (내용) 금리우대 최대 △0.5%p
신용평가 우대 (기은)	√ (대상) 고용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내용) 신용평가시 “동업계 세평 및 사회기여도” 평가 기준에 고용창출 여부를 약 2.5% 비중으로 반영
금리·대출한도 우대 (수은)	√ (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내용) 금리우대 최대 △1.0%p, 대출금액 증액

○ (혁신기업) 미래성장성 중심의 여신심사, 코스닥 상장 활성화,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분야에 자금 공급

코스피/코스닥 신규상장 기업수 (개)



✓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

재무제표 → 미래성장성

부동산담보 → 동산담보

✓ 성장지원펀드 ('18 ~ '21.4월)

9.8조원 조성 → 4.3조원 투자

- (간접투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21~'25년, 20조원), 성장지원 펀드 투자 집행('18년~, 9.8조원 조성 완료) 등
- (대출보증)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통해 3년간('20~'22년) 1,000+a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종합 금융지원 추진
- (지역·자영업자) 非수도권 지방, 자영업자 등 일자리 감소를 겪을 우려가 있는 취약 부문에 자금 공급
- (지역재투자평가) 은행·저축은행의 지역 자금제공에 대해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지원 유도

※ (참고) 2019년 중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 ▶ (지역 자금공급) '19년말 은행 전체 여신 중 비수도권 비중은 36.1%
 - 생산비중(48.2%)과는 △12.1%p 차이를 보여, '18년말 격차(△13.5%p) 대비 1.4%p 개선
- ▶ (중소기업 대출) '19년말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4%로 '18년말(95.0%) 대비 0.4%p 상승
- ▶ (서민 대출) '19년중 비수도권의 서민대출(새희망홀씨) 취급액은 1.58조원으로 전체 서민대출 취급액(3.73조원)의 42.3% 차지
- ▶ (인프라) '19년말 비수도권의 인구(1만명) 대비 점포수는 1.17개로 수도권(1.41개)에 비해 적으나,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0.01)

- (지역금융지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력산업 영위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내 자금공급 활성화

* 고용위기지역 內 중소기업 협력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대출·보증 만기연장 실시, 특례보증 등 지원

⇒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맞추어 생산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강화 필요

- 디지털·뉴딜, 신성장 기업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분야, 지역 금융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 관리 필요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향

< 기본 방향 >

- ◇ 금융업권內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물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실물과 금융간 선순환** 도모



1. 금융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
- 새로운 금융인력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

2.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新성장·혁신 분야 모험자본 공급
- 창업·벤처 분야 지원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3. 지역금융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지역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강화
- 非수도권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1.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가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

□ **(금융산업 확장)** 진입규제 합리화 및 업무범위 확장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및 금융-ICT간 시너지 효과 촉진

○ **(진입규제 합리화)** 인터넷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18.12월~), 온라인 보험사('19.10월~), 소액단기전문보험사('21.6월~)

주요 사례 :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신설

▶ **(개요)** 일반은행보다 완화된 진입요건의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신설** → 케이뱅크('16.12월), 카카오뱅크('17.4월), 토스뱅크 예비인가('19.12월)

▶ **(성과)** '20년말 인터넷 전문은행 2개사의 **직접 고용인원은 약 1,300명**이며, 향후 조직 규모 및 신규 투자 확대 시 추가 고용창출 예상

○ **(업무범위 확장)** 금융-非금융 경계완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산업(플랫폼, 지급결제, 데이터) 영위 허용 추진*

* 예) 금융회사가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 **(핀테크 출현)** 핀테크기업 및 데이터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기반과 제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핀테크 육성 가속화

○ **(법적기반 마련)**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시 임직원 면책 등

- 유망 핀테크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등도 추진

* 「핀테크 혁신펀드」('20~'23년 3,000억원)를 통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원규모 확대 및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선

주요 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 (개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 부여('20.4월)
- ▶ (성과) A 핀테크 기업은 당해 서비스 출시 준비 등을 위해 프로그래머 등 107명을 신규로 채용

- (데이터산업 인프라구축) 데이터 新산업* 도입('20.8월),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마이데이터, 비금융 CB 등

**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 금융분야 빅데이터 구축·활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금융업 및 연관산업에서 약 4,000~10,000명의 추가 고용창출효과 예상 ('19.12월, 노동연구원)

주요 사례 :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규 인가

- ▶ (개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28개사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발급('21.1월)
→ 신규 기업 31개사에 대해 심사 진행중('21.4월~)
 - ▶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인력 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
- ※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고용인원은 약 1.3만명

- (고령화 심화) 노후 자산관리 니즈(needs)에 부응하여 신탁업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 촉진

- (신탁시장 활성화) 신탁재산 범위 확대 및 다양한 구조 허용 등을 통해 신탁시장을 노년대비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

주요 사례 : 「100년 운용 치매대비 신탁」 (◇◇은행)

- ▶ (개요) B은행은 노후의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후견 기능을 결합한 "100년 운용 치매대비 신탁" 상품 출시('21.3월)
- ▶ (주요 내용) 건강한 시기에는 적립·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치매·질병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노후케어, 상속, 생활비 지급 등 생활관리 제공

- (특화상품 개발) 고령층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금융상품* 개발 유도

* 예)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고령자 체력조건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교통안전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등

나 새로운 금융인력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

□ **(전문인력 육성)** 금융권 연수기관, 대학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①IT, ②핀테크, ③지역특화 금융 등 금융권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① **(금융-IT 융합)**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금융위-서울시, '20~'23년)

* 여의도 금융대학원을 설립하고('20.9월), 디지털금융 실무전문가 연 240명 양성

※ (참고)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요

구분	비학위 과정	학위 과정
인원/기간	연 160명 내외/5개월	연 80명 내외/2년
주요내용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분석 -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 블록체인	- 디지털금융 특화 - 현장적용 능력강화

② **(핀테크)** 핀테크 교육과정, 인턴십,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을
 운영(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 '20년~)하여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핀테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플랫폼(finEDU) 고도화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확충

* 일반인·금융권 현직자·예비창업자 등 대상으로 핀테크 관련 교육과정 운영('20.7월~)

※ (참고) 핀테크 온라인 교육플랫폼(finEDU) : 핀테크 예비창업자 과정

금융클라우드 활용	금융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사례연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총 3챕터/ 교육인정 3시간	* 총 4챕터/ 교육인정 4시간	* 총 3챕터/ 교육인정 3시간	* 총 10챕터/ 교육인정 5시간

- **(핀테크 인턴십)** 핀테크 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
 으로 핀테크 기업과의 인턴십매칭 및 채용지원금 지원

주요 사례 : 핀테크 인턴십 (핀테크지원센터)

- ▶ **(개요)** 대학생들의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고, 핀테크 분야 취·창업 지원
- ▶ **(성과)** 1기생 58명이 Pre-인턴십 코스(사전교육과정)를 수료하였고, 25명에
 대해 21개사 인턴십 매칭 및 채용지원금 지원

- (핀테크 일자리 매칭) 핀테크 포털(온라인), 「FRONT1」 內 일자리 매칭존(오프라인) 등을 통해 취업상담 및 매칭 지원

주요 사례 : 핀테크 일자리 매칭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 ▶ (개요) 프론트원(Front 1) 內 일자리 매칭존을 구성하고, 전문직업상담사 2명이 상주하면서 온·오프라인 상담 진행('20.7월~)
- ▶ (성과) '20년말 기준 온·오프라인 상담 343건, 일자리 매칭 64건 완료

③ (지역특화) 핀테크(서울시), 해양·파생(부산시) 등 지역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서울) 금융·IT분야 양방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18.2월~, 서울시-금융투자교육원)

* (교육내용)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분석,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인슈어테크 등 (교육인원) 총 202명이 교육과정 이수('20년말) → '21년은 60명 예정

- (부산) 해양·파생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부산대·해양대,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산대·해양대) 파생금융, 해양금융 부문 특화 석사 교육과정 운영('17년~, 연 80명) (부산국제금융연수원) 파생금융 등 100개 이상 과정 운영('14.9월~, 연평균 2,000명)

□ (재취업 지원) 금융업권 퇴직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방안* 검토

* 예) 고용부의 전직지원 서비스(재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등) 활용

주요 사례 ① : 퇴직자 "전문역" 채용 (△△저축은행)

- ▶ (개요) 금융전문지식을 보유한 고령인력에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금피크, 정년퇴직 인력을 전문역으로 채용
- ▶ (성과) '21.4월 현재 22명('20년~'21.4월간 신규채용 10명)의 인력이 여신심사, 내부통제·감사, 지역특화 금융영업전략 지도 등 업무수행 및 노하우 전수중

주요 사례 ② : 서민금융 종합상담역 채용 (신용회복위원회)

- ▶ (개요) 만55세 이상 15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과중채무자 금융상담, 채무조정 전 단계의 종합신용상담 등 업무수행('18년~)
- ▶ (성과) '21.4월 현재 30명의 금융회사 경력자가 상담역으로 활동 중이며, 약 6,500건의 상담 진행

2.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가 新성장·혁신 분야 모험자본 공급

- **(모험자본 공급 확대)** 미래 성장성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디지털·그린 뉴딜, 新성장 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 **(자본시장)**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의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추진
 - * 증권사의 벤처대출 겸영업무 허용, 혁신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완화 등
 - ** 프로젝트투자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발행한도 확대, 광고규제 완화 등
 - **(정책금융)**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및 효율화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 지속 추진 및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지속
 - * ‘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 예정

주요 사례 : 성장지원펀드

- ▶ **(개요)** 성장지원펀드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에 총 45.4억원 투자
 - ‘19.7월 첫 투자를 실시하고, ‘20.5월 후속투자를 실시하여 성장 단계별 필요자금 공급
- ▶ **(성과)** ‘21.3월말 고용인원은 약 130명으로 첫 투자(‘19.7월) 이후 약 3배 증가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통해 정책금융의 재무·고용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자금배분 도모

※ **(참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혁신성장 관련 금융정보 통합 플랫폼, ‘19.3월~)

- ▶ **(정보수집)** 다양한 채널로부터 기업, 산업, 품목 단위의 미·거시적 통합DB 수집
- ▶ **(실적 집계·분석)**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실적 집계* 및 지원효과(고용·재무 등) 분석
 -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20년부터 무보, 중진공 추가)
- ▶ **(정보제공)** 혁신성장 산업·품목에 대한 대내외 기술·시장·정책 보고서 제공

나 창업·벤처 분야 지원

□ **(기업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요인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성장지원 추진

○ **(창업지원)** 창업·보육인프라 등을 통한 패키지 지원 지속

- 창업육성 플랫폼(IBK창공, FRONT1), 취업포털(i-ONE JOB)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사무공간·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지원

- 투자설명회(산은 NextRound), 스타트업 박람회(산은 NextRise) 개최 등을 통해 벤처투자업계와의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지원

○ **(스타트업 지원)** 「K-유니콘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 **(1단계)** 스타트업(아기유니콘) → 예비유니콘 / **(2단계)** 예비유니콘 → 유니콘

** '21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규모 확대('20년 40개 → '21년 60개)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지원

- 1조원 규모 9개 벤처펀드의 신산업(DNA&BIG3), 기업합병(M&A), 대형투자(스케일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투자 추진

- 'K-유니콘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내외 비대면 기업설명회(IR) 실시(20개사, '21.6월~)

□ **(인프라 개선)** 창업·벤처 분야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합 금융 인프라 구축

○ **(투자연계형 금융제도)** 투자조건부 용자*,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의 연내도입 추진(벤처투자법, 기보법 개정)

* 투자조건부 용자(Venture Debt) :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용자기관이 저리 용자를 해주면서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

**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정하는 채권형 투자방식

- 법 개정 이후 중진공 정책유자를 통해 5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하고, 추후 他공적기금·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 추진

○ **(플랫폼금융 활성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등이 낮은 비용으로도 자금을 조달하도록 플랫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예)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 카드결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체 등의 신용도 평가

주요 사례 ① :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 **(FRONT1) 국내 최대 창업플랫폼**(‘20.7월 개소)으로, 입주 기업에 사무공간, 멘토링을 비롯하여 직접투자 집행, 투자유치 지원, 금리인하 혜택 등 제공



⇒ ‘21.4월말, 입주 기업 134개사가 총 241명 신규 채용 (742명→983명), 51개사가 총 436억원 투자유치

▶ **(IBK창공)** 기은 지점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사무 공간, 컨설팅 및 투융자 지원(‘17.11월 마포, ‘18.10월 구로, ‘19.5월 부산 → ‘21.下 대전 개소 예정)



⇒ ‘21.2월말, 총 307개 기업에 2,175억원의 투융자, 3,700여건의 컨설팅·투자설명회 등 지원

주요 사례 ② : KDB NextONE (산은)

▶ **(개요)**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 운영사와 함께 FRONT1 내에 사업연계, 투자유치 지원 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20.7월~, 연 30개사)



▶ **(성과)** 1기 스타트업 15개사(‘20.7~12월)의 경우 총 72억원 투자 유치, 계약·업무제휴 25건, 특허출원 32건 및 48명 고용 증가(+34.8%) 등 성과

주요 사례 ③ : 은행권 일자리펀드(은행권청년창업재단)

▶ **(개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3,200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19~‘21년, 8,000억원)



▶ **(성과)** 총 8,507억원의 자펀드 조성, 총 144개 기업에 3,162억원 투자 집행(‘20년말)

○ 피투자기업의 일자리가 투자시점 4,257개 → ‘20.12월말 5,840개로 37.2% 증가

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지속

주요 사례 ① : 고용창출 우대보증제도 (신보)

▶ 고용창출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 운영

	신규창출단계	양적성장 단계	질적 성숙단계	
구분	고용창출 우수기업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
요건	상시근로자수 10%이상 증가 등	최근 6개월 내 인력 신규고용 등	3년 연속 고용매출이 20%이상 증가 등	"좋은일자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지원	보증료 차감 (0.1~0.3%p)	신규고용 약정시 인건비 지원 (0.7%고정보증료를)	보증료 차감 (0.3~0.4%p)	√ 보증료 차감 (0.4~0.5%p) √ 보증비율 90% √ 전문 컨설팅 등

주요 사례 ② : 일자리채움펀드 (기은)

▶ **(개요)**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i-ONE JOB)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금융비용 지원**('18.9월~)

▶ **(주요 내용)** 채용인원 **1명당 50만원**(동일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 수수료, 급여이체 실적금액 일부 등 **환급**

- **(고용안정 지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기존 고용유지 지원(캠코 S&LB* 프로그램)

* S&LB(Sale & LeaseBack, 매입 후 재임대) : 캠코가 기업의 자산(주로 공장)을 매입하고, 기업은 임대료 납부를 통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 가능

- 지원대상 확대(중소·중견→대기업), 업종 다양화(예: 호텔업) 등을 통해 모든 기업·산업에 걸친 지원 추진

※ '20년중 14개 기업에 총 4,422억원 지원 → 총 3,433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

주요 사례 : 캠코 S&LB 프로그램 (부산 소재 □□사)

▶ **(개요)**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 1차 벤더로 자동차 도어벨트, 외관 몰딩 부품 생산, 해외 종속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S&LB 신청

▶ **(성과)** 차입금 상환(201억원)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및 212명 고용유지 효과

3. 지역금융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 지역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강화

- **(지역재투자평가)** 은행·저축은행의 지역 자금제공에 대해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20.8월~)하여 지역경제 지원 유도

※ (참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 ▶ (평가대상)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
 - ▶ (평가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
 - ▶ (평가내용)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 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 정량 지표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로 구성
 - ▶ (평가활용) 지역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 미흡/미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 *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및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 **(지역금융기관)**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 **(지방은행)**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완화된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방안 적용(‘22년~)
 - 시중은행과 상이한 지방은행의 리스크 성격*을 감안하여, 지방은행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기준** 마련
 - * 차주 대부분이 지방 거점지역에 분포하여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한 한편,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 신용리스크는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음
 - ** 예)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시중은행과 등급을 달리 부여
 - **(상호금융)** 지역기반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의 지역내 금융이용 접근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하여 금융접근성 제고
 - *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 정보 등록, 상품·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 제공

※ (참고) 태블릿 브랜치 운영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월	'17.11월		
운영대수	214대	3,144대		
주요기능	√ 조합원 가입 √ 수신 신규 가입 √ 입출금 및 송금* √ 대출상담	√ 신규고객 등록 √ 수신, 여신 및 전 자금용, 신용카드 가입(접수)	未운영	未운영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 중앙회장 승인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자기자본 범위내 출자 허용(法 개정*과 연계)

* 전재수 의원('20.7.15. 발의) 등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

-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출시(새마을금고·농협) 및 기존 전용상품의 판매 활성화(신협, 수협) 추진

※ (참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구 분	한 도	우대사항	출시일자
① [농협]	4억원	▶(금리우대) CD기준금리 + 1.3~1.6%p	'21.6.1.
② [새마을금고]	10억원	▶(금리우대) 0.3%p 우대 ▶(기타) LTV한도 상향	'21.6.28.(예정)

○ (저축은행) M&A 허용, 지점 설치규제 완화 등 규제 합리화

-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 非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 적용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 방지

- 지점설치시 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고객 접근성 제고

* 예)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 인가 → 사전신고
출장소 등 기타 경우 : 인가 → 사후보고

주요 사례 : 중금리 사업자대출 (서울신보-5개 저축은행)

- ▶ (개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대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5개 저축은행간 협의를 통해 중금리 사업자대출 출시('20.11월)
- ▶ (주요 내용) 소득·신용이 양호하나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금리 6.5% 이내 대출

나 非수도권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 **(자금지원 확대)** 非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 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주력산업)** 제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금 등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대금 저리대출, 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PF대출 주선·참여 등 지원

※ (참고) 주요 금융지원 상품

구분	지원분야	금리우대
산업구조 고도화 (산·기은, '21년 3조원)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최대 △ 0.7%p
공장부지분양대금 지원 (산은, 연 0.5조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산업(물류) 단지 內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	최대 △ 0.5%p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산은, 연 1.0조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최대 △ 0.4%p

- 각 지자체 지역 주력·협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상향, 보증한도 우대 등의 우대보증 지원(신보)
- 지자체와의 협약,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및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한 밀착 지원·관리 추진

주요 사례① : 지자체 협약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

- ▶ **(개요)** 69개 지자체 등 협약기관이 추천서를 발급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 감면**(협약 지자체별 상이, 0.5~5%p)
- ▶ **(성과)** 69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총 22,495억원 지원**('21.4월말)

주요 사례②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산업은행)

- ▶ **(개요)** 산업은행은 **총 5개 지역**(광주, 대구, 강원, 군산, 부산)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지분투자, 대출, 전환사채(CB) 등 **총 5,030억원 금융지원** 중
- ▶ **(예 : 부산형 일자리)** 부산시-코렌스EM-20개 중소 협력업체는 전기차 부품 제조·연구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 → 산은은 코렌스EM에 시설자금 580억원 지원
⇒ 2030년까지 코렌스EM 및 협력사의 **약 7,600억원 투자** 및 **4,300여명 고용 유발 효과** 기대

○ **(지역 벤처투자)** 지역의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에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확대 추진

① 모태펀드와 지자체·지역 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를 통해 '21년 4개 권역, 최대 5천억원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추진

* [1호] 부산('20.12, 한국벤처투자·부산시·기보),
[2호] 충청('21.3, 한국벤처투자·대전·세종·충북·충남·수자원공사)

② 엔젤투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함께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 광역권을 2곳을 우선 선정('21.2, 충청·호남), 벤처투자 인식개선, 투자자 발굴, 기업매칭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혁신기업)** 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 벤처투자를 既유치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출자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용(기보)

* 비수도권 투자비중 연간 목표 : ('16~'20평균) 47.3% → ('25) 65% 이상

○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강화

- 비수도권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증개기관 발굴, 지원방안 검토(서민금융진흥원)

-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개선*(신보)

* 성장성 있는 유망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 (**[現]** 1~3억원 → **[改]** 3~5억원)

□ **(역량강화)**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지역금융 정책·공급 역량 강화

○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주요 지역산업 중 하나인 농어업의 혁신지원을 위해 농신보의 재원 및 인력 확충 추진

○ 지역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전담조직(금융위 內 '가칭 지역금융과', 지자체 內 '가칭 지역금융센터') 신설 검토

IV. 향후 추진계획

주요과제	추진일정	소관 (금융위 소관과)
1.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모		
가.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 허용	'21.下	(은행보험)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산업 영위 허용	'21.下	(은행선택)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21.下~	(혁신)
데이터 新산업,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육성	'20~	(데이터)
신탁업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21~	(자산)
고령층 특화금융상품 개발	계속	금융위
나. 새로운 금융인력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과정	'20~'23	금융위·서울시
핀테크 온라인 교육과정	'20~	금융위·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인턴십 프로그램		
핀테크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2.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가. 新성장·혁신 분야 모험자본 공급		
증권사의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21.下~	(자본)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20.下~	(자산)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21~'25	(뉴딜)
성장지원펀드 투자 집행	'19~	(산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20~'22	(산금)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 운영	'19~	(산금)
나. 창업·벤처 분야 지원		
FRONT1, IBK 창공 운영	'20.下~	(산금)
K-유니콘 프로젝트 지속 확대	'21~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 활성화	~'21	중기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21.下~	(데이터)
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대금융 지원	계속	(산금)
캠코 S&LB 프로그램	'20~	(기업)
3. 지역금융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 지역금융기관 자금증개기능 강화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20~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자금증개기능 강화	'21.下~	(은행중소)
나. 非수도권 지방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주력산업 시설·운영자금 등 지원	계속	(산금)
지역투자 펀드 조성	계속	중기부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1~	(서민)